

2024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소 선정

- 경북 죽변자망공동체, 경기 흘곶공동체, 전남 와온공동체, 강원 속초 4개 어촌계 공동체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9월 10일(화) 자율관리어업*공동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2024년 우수공동체 4개소(최우수1, 우수1, 장려2)를 선정하였다.

*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어업인이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결성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체규약에 따라 수산자원을 보전·관리·이용하는 어업

해양수산부는 2006년부터 매년 자율관리어업공동체 중 활동이 활발하고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선정하여 지원금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지난 6월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우수한 공동체를 추천받아 7월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금번에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였다.

최우수로 선정된 경북 죽변자망 공동체는 자체적으로 포획금지기간과 금지체장을 강화하여 운영하고 그물코 확대, 총허용어획량(TAC)을 자체적으로 정하여 자원을 관리해왔다. 또한 어장관리를 위한 어구실명제, 친환경 어구 사용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위해 생산자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도록 노력한 점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생산자 스티커 자체 제작, 체장 측정 자 및 울진 대게 인증라벨 개발

우수로 선정된 경기 흘곶 공동체는 금어기·금지체장 확대 운영, 어장 환경 조성을 통해 자원관리를 자발적으로 수행했으며, 공동판매, 유어장 운영 등으로 공동체의 경영개선을 이끌어냈다. 특히, 흘곶 공동체는 자체 규약 제정 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힘써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장려로는 전남 와온 공동체, 속초시 4개 어촌계가 선정되었다. 와온 공동체는 채묘장* 조성, 수산종자방류를 통해 어장을 관리하고 자체 브랜드 개발, 온·오프라인 판매망 구축 확대 등 경영개선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하였다. 속초시 4개 어촌계 또한 조업 중 쓰레기 수거 등 정화 활동, 공동체 동참을 위한 교육 등을 활발하게 수행하는 등 공동체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위해 노력한 점이 돋보였다.

* 굴이나 조개 등을 기르기 위해 종패를 부착하는 곳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자율적으로 노력해 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자율관리어업 성공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박영호 (044-200-5530)
	수산자원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양지영 (044-200-5533)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참고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활동 사진

□ **최우수: 죽변자망협회**



자발적 대게 그물코 확대



어구실명제 운영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친환경 육성



체장 측정자 제작

□ **우수: 경기 흘곶 공동체**



어장 환경조성 활동



간이판매장 운영

□ 장려① 전남 와온 공동체



자체 수산종자방류



자체 브랜드 개발 및 인터넷 판매망 구축

□ 장려② 속초시 4개 어촌계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



돌기해삼 종자 무상방류